

지난주 설교요약

* 성경 : 눅 11:5~13

* 제목 :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1. 하나님은 친구가 아니라 아버지이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기꺼이 떡을 내어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네 친구도 한 밤중에 뽐뽐하게 와서 떡을 달라 해도 빌려주는데, 하물며 너의 아버지께서는 졸지도 않는 분이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신데, 자녀된 너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어찌 귀찮다하시면서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뽐뽐함을 무릅쓰고 나아오라는 말입니다.

2. 하나님은 구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이지만,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가 아니고, ‘기도하면 들어주는가’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하면 주시는데, 구한대로는 주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는 말은 비슷한 것, 짝꿍, 유사품을 주지 않고 진품을 준다는 말입니다. 생선과 알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뱀과 전갈은 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뱀을 생선으로 생각하고는 뱀을 달라 기도하고, 전갈을 알로 생각하고는 전갈을 달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합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라고 말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식인 우리가 하나님께 시도 때도 없이, 격식 차리지 않고, 그리고 좀 뽐뽐하게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아비 노릇의 즐거움을 누리십니다. 그러면서 연약하고 무지하기에 해로운 것 구해도, 우리의 구한대로 주시지 않고 유익하고 꼭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아비노릇을 하십니다.

순모임 질문 (1월 28일 설교)

- 1) 이번주 설교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 하나를 말해보시고, 이 단어를 선정한 이유를 나누어주세요.
- 2)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거짓을 만들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 3)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4) 이번주 설교 내용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시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나누어보세요.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예수그린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 예배 안내 *새벽기도회(월-금) : 새벽 6:00 *수요오전예배 : 수요일 오전 10:30
*금요기도회 : 금요일 저녁 8:00
*순예배 : 순별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립니다.
2. 2024년 표어 -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
3. 젊은이예배 오픈 - 3부 젊은이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1,2부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경우에 3부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4. 성찬식 -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5. 비전헌금 - 다음주는 비전헌금 주일입니다. 비전헌금은 선교사들께 보내드립니다.
6. 예수전도단 직장인 훈련학교(BDTS) 신청 - 용인/화성/분당권 성도들을 위한 훈련학교가 시작됩니다. *개강 : 3월중 *문의 : 사무실
7.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 바이올린, 첼로, 플룻, 피아노반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 모임 시간 : 토 오전 10시 (악기 무상 대여)
8. 성경읽기 &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 - 송구영신예배때 작성한 성경읽기와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를 지속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 예배 시청 안내 - 주일설교 및 새벽예배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참여방법 : 유튜브에서 ‘예수그린교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선교지 소식

송중훈 선교사

홍콩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광동성 심천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심천에서의 새로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 예수 그린의 비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 온 세상에 바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다.

... 예수 그린의 사명

예수 그린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교회임을 자각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